



주간 중국 창업

제 273 호 (2022. 03. 30)

발행처 :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 김종문

전화 : +86-10-6780-8840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 의 저작권은 ‘KIC중국’ 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Weekly 뉴스

- ▶ 글로벌 6G 기술컨퍼런스 개최, 2030 년 상용화, 메타버스 상륙 가속화 — 신화일보(新华日报) p2
- ▶ 제 5 회 ‘중국창업 창업혁신 경진대회’ 안내 — 워아이징싸이왕(我爱竞赛网) p4
- ▶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로 지원하는 탄소피크·탄소중립 행동계획 발표 — 신화망(新华网) p8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p10

CHINA 창업

- ▶ 【신흥산업】 공간 결합형 메타버스 산업 소개 p12
- ▶ 【산업정책】 중국 AI 인재 양성 정책 I p17
- ▶ 【기획/우수 기업】 2022 여성 창업가 우수 기업 시리즈 I p22

KIC 중국 NEWS

- ▶ 【KIC 행사】 '2022 KIC 중국 창업대회'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p26
- ▶ 【KIC 행사】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재중 한국인 창업대회 개최 p30

1. 글로벌 6G 기술컨퍼런스 개최, 2030년 상용화, 메타버스 상륙 가속화

— 신화일보(新华日报)

5G를 잇는 차세대 기술 6G가 또 하나의 핵심 관문을 넘고 있다. 원래 난징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 2회 <글로벌 6G 기술 컨퍼런스>가 3월 22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6G가 2030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6G는 5G를 기반으로 사람, 사람과 사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인텔리전스 기능을 포함한 물체의 효율적인 연결을 지원하며, 만물의 상호 연결에서 만물의 지능적 연결로 도약하고, 최종적으로는 인류 사회에 '만물의 스마트 연결, 디지털 트윈 공생'을 실현할 것이다.

중국은 줄곧 6G 발전을 중시해왔다. 올해 1월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에서는 미래에 대비하여 6세대 이동통신(6G) 네트워크 기술을 준비하고, 6G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6G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했다. 2019년에는 국가 6G 기술 R&D 추진 사업팀과 전문가팀, IMT2030(6G) 추진팀을 차례로 설립하여 6G 각종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작년은 메타버스 원년으로 6G 구현과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메타버스의 장대한 세계는 XR과 같은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NFT 암호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에는 6G가 기초 구조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G는 사람, 기계, 사물, 영혼이 서로 충분히 연결되고 가상과 결합하며, 인텔리전스 기반 네트워크로 나아갈 것이다." 장핑[张平,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베이징우편통신대학(北京邮电大学) 교수]은 6G의 비전과 기술적 요구에 대해 "점-선-면에서 입체로 발전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닌 인텔리전스 기능을 가진 산물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 공간을 확대하고 통신에 지능적 기능이 강화되며, 인텔리전스·통신·인류가 서로 연결된 미래의 새로운 시스템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장핑(张平)은 6G가 진화한 미래 모습은 디지털 트윈과 인텔리전스 보급으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라고 했다. 6G 발전이 미래에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여부는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래에 6G는 몰입형, 지능형으로 전 영역에 걸친 개념이 될 것이며,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기존 기술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AI 지원 신호 처리, 양자통신이 가미된 6G, 통신 센서 일체화, LIS(Large Intelligent surface)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 연구를 더욱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6G 통신 표식은 5G와 비교하여 10-100배 향상되고 위치 지정도 센티미터 수준의 고정

밀로 실현하게 되어 디지털 트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지능형 네트워크가 자율적인 최적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6G 는 수요부터 표준까지 정해진 속도에 따라 나아가고 있다. 홍웨이[洪伟, 동남대학교(东南大学) 정보과학부 교수]는 6G 기술은 안정적으로 멈춤없이 계속 진화해야 하며, 수요가 정체될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메타버스가 6G의 개선된 대부분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혁신적인 진전은 중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와 지상파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융합이 될 것이다. 1G부터 5G 모두 육지에서 2차원에 가까운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배치되었으나, 지구 표면의 29%만이 육지이기에 6G는 중저궤도의 위성 네트워크와 지상파 포스트 5G 네트워크를 융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처음으로 무선 통신망을 지구 표면 전체, 근거리 공간과 심지어 지구 외부의 일부 공간까지 완전히 커버하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유비쿼터스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6G는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보급되고 그 기술이 다양하다. 요우샤오후[尤肖虎, 즈진산실험실(紫金山实验室) 부주임 겸 수석 과학자, 동남대학교(东南大学) 교수]는 공중과 지면 통합, 밀리미터파 테라헤르츠 등 5G와 6G 기술의 결합이 5G 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6G 개발을 더욱 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층위에서 다학제 교차 인재팀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동 통신망은 사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보 인프라가 되었으며, 6G 비전·요구 사항·핵심 기술에 대한 초기 탐구에서 안전, 유연성, 지속 가능성에서 주목을 받았다. 우장썩[郇江兴,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은 "인간, 기계, 사물이 통합되는 세계에 직면하여 6G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의 내외부에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정보 보안의 기밀성, 완성정도, 가용성, 개인 정보 보호의 기초 위에 6G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기능 안전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2030년 이후 스마트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중요한 지원 기술로서 커버리지, 대역폭, 지연, 단일 기술 지표에서 도약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6G는 기술 성능, 비용 투입, 에너지 소비, 안전 신뢰도, 지속 가능한 효율 등과 같은 다목적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 제 5 회 '중국창익 창업혁신 경진대회' 안내

— 워아이징사이왕(我爱竞赛网)

제 5 회 '중국창익(中国创翼) 창업혁신 경진대회(이하 '중국창익 창업대회'라 칭함)가 열린다. 이 경진대회는 중국 공산당 19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관철한 '창업을 장려하여 취업을 촉진'한다는 기조에 기반하여 국가 혁신 발전 전략, 취업 우선 전략, 인재 강화 전략을 시행하며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핵심가치를 구현한다는 정책 방향 아래 탄생한 창업 경진 대회로 창업과 혁신을 유도하고, 창업으로 취업을 일으키며 빈곤 퇴치 기여 정도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와 창업가의 사회 공헌을 강조하는 프로젝트이다.

1) 경진대회 주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중국몽을 함께 이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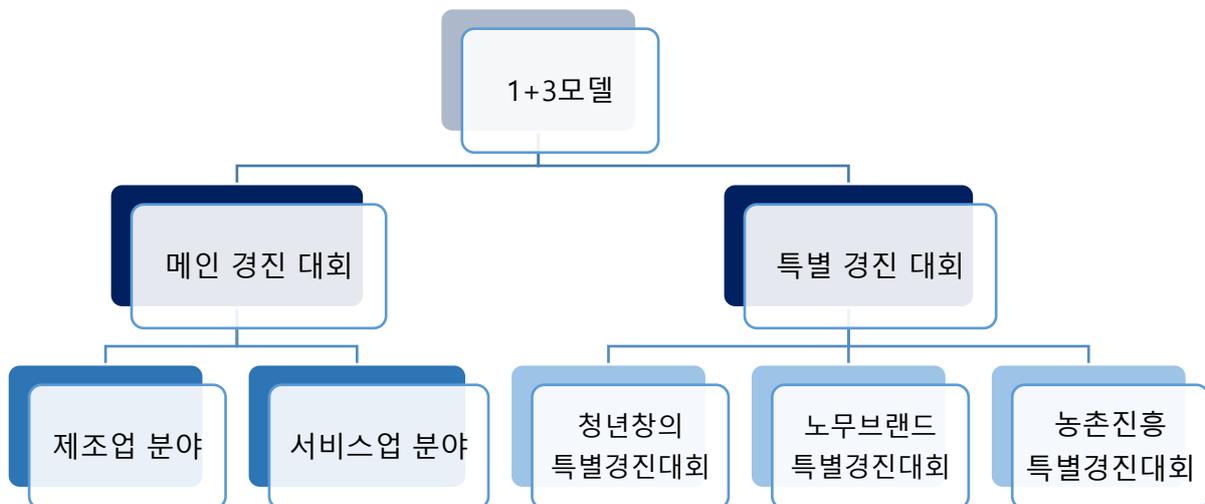
2) 주최/주관 기관

주최 기관: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社会保障部), 관련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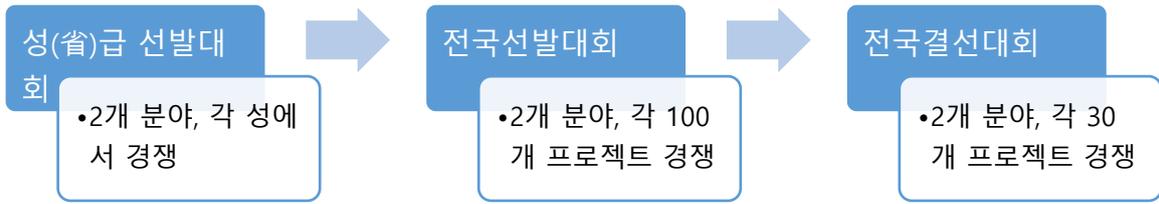
주관 기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취업촉진국(人力资源社会保障部就业促进司), 전국인재유동센터(全国人才流动中心)

3) 경진 대회 구성

대회는 '1+3' 형식으로 1 개의 메인 대회와 3 개의 특별 대회가 있다. 메인 대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2개 분야로 나뉘고, 3개 특별 대회는 청년창의특별경진대회, 노무브랜드특별경진대회, 농촌진흥특별경진대회로 구성된다.



▶ 메인 경진대회 3 단계 과정 안내



*노무브랜드 특별경진대회는 직접 추천 가능

(노무브랜드 편집자 주: 지역·산업·기능적 특성을 구비하고 고용 효과가 뛰어나 산업 발전과 농촌 진흥을 촉진하는 브랜드를 뜻한다)

4)대회별 참가 가능 분야와 대상 소개

- 메인 경진대회**

 - 광업 및 제련, 섬유 의류, 기계 제조, 제품 대리 제작, 소형 상품 제조와 같은 전통 산업에서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이룬 프로젝트.
 - 정보 기술, 생명 공학, 신에너지, 신소재, 고급 장비, 신에너지 차량, 녹색 환경 보호, 항공 우주, 해양 장비, 인터넷 TMT 등 신흥 산업.
 - 서비스 산업 프로젝트는 무역, 요식업, 숙박, 가사, 건물관리 등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연구개발, 전자 상거래 물류, 법률 서비스, 교육 트레이닝, 인적 자원, 건강케어, 문화·스포츠·관광 등 현대적 서비스업 포함.
 - 16세 이상의 모든 유형의 창업팀이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소재지는 중국 대륙에 있어야 함.
- 청년창업 특별경진대회**

 - 16세~만 35세 전문대 이상 또는 기술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술·제품·모델 등 방면에서 반드시 혁신적인 성과와 완성된 창업계획서를 갖추어야 함.
- 노무브랜드 특별경진대회**

 - 모든 유형의 노동 업무에 해당하며 노동 업무 브랜드를 육성 개발하는 창업 프로젝트를 뜻함.
 - 16세 이상의 모든 유형의 창업팀이 지원할 수 있고 프로젝트 소재지는 중국 대륙이어야 함.
- 농촌 특별경진대회**

 - 농업과학기술, 특수 작물 양식, 농산품 가공,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 농촌 관광, 전통 공예품, 문화 유산 혁신, 향토 인재 육성 개발 등과 같은 각종 농촌창업 프로젝트.
 - 16세 이상의 모든 유형의 창업팀이 지원할 수 있고 프로젝트 소재지는 중국 대륙이 되 직할 향(乡), 진(镇) 농촌의 현(县) 도시 이내에서 등록, 생산,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5) 대회 참가 조건

- 공모 등록 프로젝트는 국가 법률 규정과 국가 산업 정책, 운영 규범을 준수해야 함.
- 사회적 평판이 양호해야 하고 제 3 자의 지적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됨.
- 이전 대회에서 1, 2, 3 등을 수상한 프로젝트는 참가할 수 없음.

①메인 대회, 노무브랜드 특별경진대회, 농촌진흥 특별경진대회 등록조건

- i. 2022 년 5 월 31 일까지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된 지 5 년 미만인 기업 또는 기관
- ii. 혁신 기술·제품·경영 서비스 모델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프로젝트의 제품과 운영은 동일 참가 주체에게 속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합법적 사용 권한이 있을 것.
- iii. 참여 프로젝트는 지적 재산권 분쟁이 없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 iv. 참가자는 반드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창립자 또는 핵심 팀 구성원이어야 함.

②청년창업의 특별경진대회 참가조건

- i. 프로젝트의 제 1 창업자는 2022 년 5 월 31 일까지 만 16 세 이상 만 35 세 이하인 전문대학 이상 또는 기능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ii. 아직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프로젝트.
- iii. 기술, 제품, 모델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완전한 사업 계획이 있으며 구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
- iv. 지적 재산권 분쟁이 없으며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 소유권, 사용권 및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프로젝트.

6) 대회 일정

I 단계 메인 경진대회 시작		
메인 경진 대회 2022 년 2 월 중순 시작	지원 신청 마감	2022 년 5 월 20 일까지
	지원 허가 심사 마감	2022 년 5 월 31 일까지
	○공식사이트에서 종류별로 통일적으로 지원하며 다른 주제의 대회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상기 일자는 각 성 확정 참가자의 자료 업로드 마감일이며 각 성 조직위원회의 마감은 1~2 달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요망	
II 단계: 성급 선발 대회		
성급 선발 대회 2022 년 6 월 30 일까지	○각 대회는 원칙상 로드쇼 형식으로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국조직위원회 동의를 거친 후 통일된 원칙에 따라 전문가 집중 평가 방식을 통해 선발	
전국선발대회 참가팀 확정 2022 년 7 월 5 일까지	○각 성에 통일된 원칙으로 참가팀 수량 할당	

Ⅲ단계: 전국선발대회&전국결선대회: 2022 년 7 월 말 이전

전국선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개 그룹 동시에 경쟁 진행 ○메인대회: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룹, 농촌진흥특별경진대회-각 그룹 50 개 프로젝트 심사 ○청년창업특별경진대회-각 그룹 48 개 프로젝트 심사 ○매 프로젝트 팀 3 인 이내일 것 ○현장 로드쇼 방식으로 2 일내 완료 ○각 그룹 15 위까지 결선진출 ○결선 탈락 팀은 '창익스타(创翼之星)'상 수여
전국결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회 30 개 프로젝트 경쟁 ○현장 로드쇼 방식으로 1 일내 완료. ○1 등상 2 팀, 2 등상 6 팀, 3 등상 10 팀, 우수상 12 팀 선발 (각 성별로 상금이 주어지기도 함) ○시상식과 폐막식 거행

7)수상 혜택 및 지원

- 수상자에게 상패, 증서, 상금 수여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전국 우수 창업혁신 프로젝트' 칭호 수여
- '창익스타'상 상패와 증서 수여
-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상응하는 혜택 수여
- 전국조직위원회의 '중국창익(中国创翼)' 공식 사이트의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지속 홍보, 참가 프로젝트와 창업가의 지명도를 높이며 자금과 시장 매칭, 발전 기회 확대.
- 전국선발대회 참가 프로젝트 각 팀의 리더 창업가 중 대표적인 인물 선정 홍보
- 관련 부문과 협조하여 선정 프로젝트를 현지 창업 지원•창업서비스•인재지원 등의 정책적 조치와 결합시켜 지원
- 수상 프로젝트, 특히 '전국우수창업혁신프로젝트' 칭호를 획득한 프로젝트는 담보대출 신청 조건 완화, 자금 지원, 입주 산업 단지, 인큐베이팅 훈련 등의 지원 제공

*출처: 위아이징사이왕(我爱竞赛网) <http://www.52jingsai.com/article-16033-1.html>

3.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로 지원하는 탄소피크·탄소중립 행동계획 발표

— 신화망(新华网)



사진 1) 출처: 중국과학원(中科院) 제공. 기자회견 장면

중국과학원은 3월 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과학원의 과학기술로 지원하는 탄소피크·탄소중립 전략적 행동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과학원은 ○과학 기술에 대한 전략적 연구 ○기초 첨단기술 교차 발전 ○핵심 기술 혁신 ○신기술 종합 시범 ○인재 지원 및 육성 ○국제 협력 지원 ○혁신 시스템 능력 향상 ○'탄소피크·탄소중립' 과학 보급 8대 행동과 18 가지 구체적인 핵심 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8 가지 핵심 과제 내용은 ▶이중탄소(탄소피크와 탄소중립) 기술 개발 로드맵 ▶이중탄소 전략 지원 ▶에너지 교차 혁신 ▶탄소포집 과학 원리와 방법 연구 ▶화석에너지 고효율 청정 이용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선진 핵에너지 기술 ▶축전 및 다중 에너지 융합기술 ▶탄소포집 기술 개발 ▶이중 탄소 기술 종합 시범구 운영 ▶탄소원 포집 검측 시범구 운영 ▶리더급 핵심 인재 육성 ▶복합형 인재 교육 ▶다영역에서 과학기술 협력 강화 ▶과학 기술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 ▶중점 연구소 건설 ▶인프라 건설 혁신 강화 ▶이중탄소 과학 보급과 홍보로 이루어졌다.

장타오[张涛, 중국과학원 부원장]는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세운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에 관한 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고 수준에서 다학제간에 조직된 중국 과학원 원사 전문가들이 거의 반년 간의 연구와 보완 끝에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행동계획'은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정세와 국가전략적 필요에 따라 조정·갱신되는 개방적인 과학기술계획이라고 했다.

딩츠바오[丁赤飏, 중국과학원 주요과학기술임무국 국장]는 '행동 계획'의 주요 발전 목표를 소개했다.

<p>2025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피크를 지원하는 핵심 기술을 만들고, 저탄소 녹색 경제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탐색. ○온실 가스 흡수원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 탄소원 흡수를 모니터·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국가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 마련. ○화석 에너지·재생 에너지·원자력 에너지·온실가스 흡수 등 관련 기술 혁신. ○주요 산업에서 저탄소 기술 시범 추진, 산업에서 친환경 발전 지원.
<p>2030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피크를 지원하는 핵심 기술을 글로벌 선진 수준까지 도달. ○탄소중립의 과학적 원리와 핵심 기술에서 혁신적 발전을 이루어 탄소중립 목표에 과학 기술적 대비와 솔루션 마련. ○신에너지 중심의 다중 에너지 통합 기술 시스템과 탄소포집 증대 기술 시스템 구축 ○핵심 산업에서 저탄소 전환 및 개발 시스템 솔루션 마련, 탄소중립 시범지구에 체계적인 기술 지원.
<p>2060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실현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하는 경제 시스템과 깨끗한 저탄소,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 핵심 기술 및 시스템 솔루션 제공.

중국과학원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2020년 말 전국 10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탄소중립' 컨설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에너지, 탄소 격리,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9개의 특별 주제를 설정한 컨설팅 연구, '탄소 통제→탄소 감축→저탄소→탄소중립'에 이르는 탄소중립 발전 로드맵 등의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1. 규제 우려에 잔뜩 움추린 중국 NFT 시장, 자체 검열 강화

(토크포스트, 2022.3.22)

중국 IT 대기업들이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없이 NFT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정부 단속과 규제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인 위챗은 거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NFT 플랫폼 계정들을 삭제했으며, IT 대기업 앗트그룹과 텐센트는 NFT 관련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선제적인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위챗이 삭제한 NFT 플랫폼 계정 중에는 인기 NFT 프로젝트 시후넘버원(Xihu No.1)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명 NFT 플랫폼 동이위엔디엔(Dongyiyuandian)은 "공식 앱이 금지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앗트그룹이 출시한 디지털 수집품 플랫폼 '웨일토크(WhaleTalk)'는 이용 약관을 변경해 NFT를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현지 매체는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암호화폐 단속 당시, 당국이 관련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것을 목격한 기업들이 알아서 시장 단속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최근 NFT 플랫폼 관련 불법 거래와 봇(bot) 거래가 증가하며 투기성이 드러난 것도 이같은 행보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2021년 정부는 인민일보 자매지 증권일보를 통해 "NFT 거래에 큰 거품이 끼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전달했지만 공식적인 금지 입장을 내놓거나 제재에 나서진 않았다.

이같은 규제 공백 속에 앗트그룹, 텐센트, 징둥닷컴, 바이두, 신화통신 등 중국 대기업들이 '디지털 수집품'이라는 이름으로 NFT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련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고강도 자율 규제를 마련하는 등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NFT 시장을 확장해왔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앙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은 중앙 통제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암호화폐와 연결되지 않고, NFT를 발행·관리할 수 있는 원스탑 샵을 제공할 것이다"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NFT 플랫폼을 개설하기도 했다.

2. 중국, 차세대 6G 기술 경쟁에서 선두권 나서 (초이스경제. 2022.3.24)

중국이 2030 년쯤 본격적인 상용화가 기대되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6G 기술 경쟁에서 선두권에 나섰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24 일 보도했다.

방대한 투자와 모바일 운용업체의 기술 수준, 장비제조업체 준비 태세에 비춰볼 때 선두주자로 손색이 없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6G 기술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5G 보다 10 배~100 배 빨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통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차이나 모바일 연구소 츠린이 수석 과학자는 지난 23 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글로벌 6G 컨퍼런스(22 일~24 일)에서 "앞으로 3 년에서 5 년이 6G 기술개발 확보에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그는 "6G 기술의 글로벌 통일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표준기관이나 플랫폼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글로벌 6G 컨퍼런스에는 중국을 비롯해 외국 정보통신 전문가 100 여명이 참여해 6G 개발 현황과 향후 비전에 대해 토론했다.

상리강 베이징 정보소비연대 사무총장은 해당 매체에 "세계적으로 2028 년쯤 6G 표준에 합의할 것이며, 중국은 2025 년까지 관련 기술 연구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6G 표준 제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28 년 세계최초 6G 상용화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이통통신업체 차이나 유니콤은 이달 초 경영실적을 발표하면서 6G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보통신업체 화웨이는 2019 년 초 6G 장비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2020 년에는 차이나 유니콤, 갤럭시 우주항공과 손잡고 6G 기술 공동개발을 위해 우주, 지상 통합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장으로 2019 년 5G 상용 허가를 내준 데 이어 그동안 세계 최대 5G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했다. 2021 년말 현재 세계 60% 이상인 143 만개 5G 기지국을 세웠다.

CHINA 창업

1. 【신흥산업】 공간 결합형 메타버스 산업 소개

메타버스를 공간과 결합하여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주목할 만한 기업을 소개한다.

회사명	화동테크놀로지 花动科技		
소재지	상하이	홈페이지	https://www.huadongmeta.com
메타버스 분야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		

화동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 자체 오픈한 'ARK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을 공식 런칭했고 2월 1일 전 직원이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근무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창업자 강민구 CEO는 사무실 임대가 만료되는 2022년 6월 이후 더 이상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동테크놀로지가 개발한 'ARK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에 들어가면 바오룽청(宝龙城) 빌딩을 1:1로 복원한 가상 오피스에 아바타로 들어가 원격 근무임에도 사무실에 있는 듯 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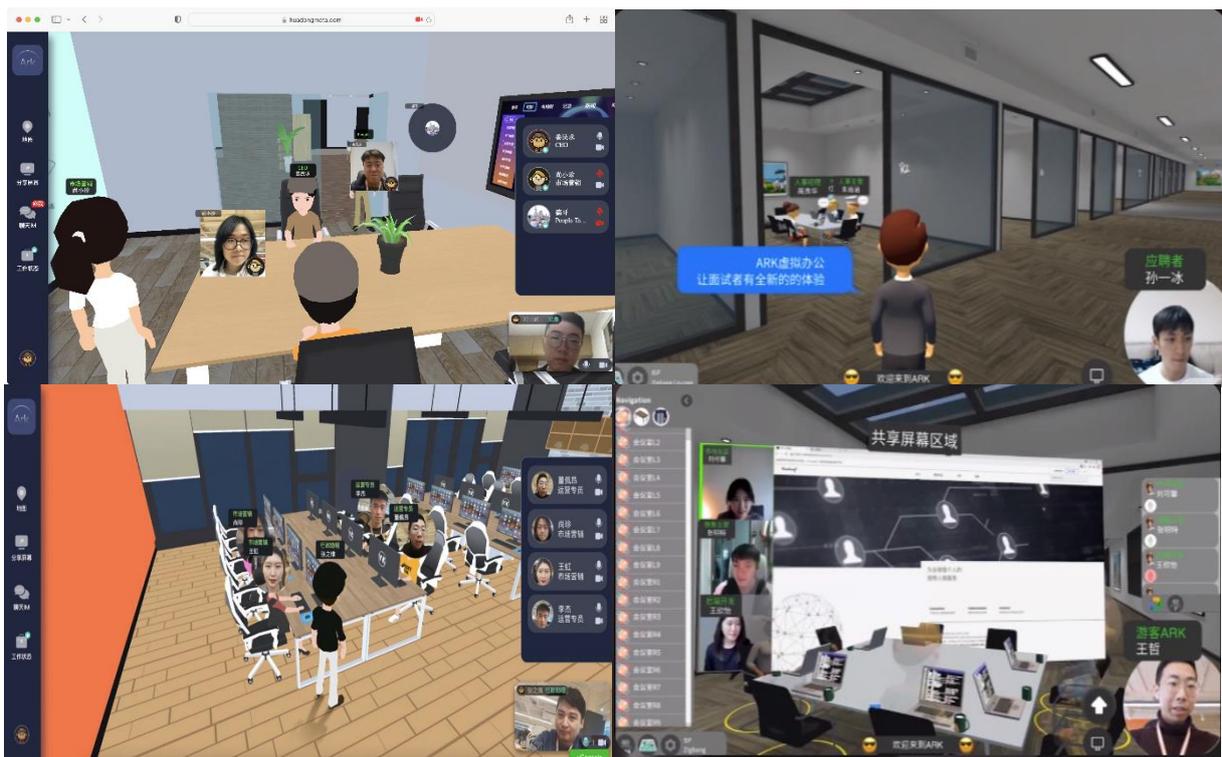


사진 1) 출처: 36kr, 화동테크놀로지 사이트. 아바타가 서로 만나면(양측이 일정 거리 진입) 개인용 PC에 연결된 아바타 소유자(직원)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음성 대화를 진행할 수 있고, 회의를 진행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때 가상 칠판에 작성할 수 있으며, 회의 후에는 이러한 칠판 필기를 컴퓨터를 통해 내보낼 수 있고, 실제 컴퓨터에서 PPT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자신만의 3D 캐릭터를 조작하고 동료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영상 및 음성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고 모든 사람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

사육이 사라지는 대신 항저우, 광저우, 베이징 등의 도시와 한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직원이 등장했고 ARK 에서 '대면' 사무실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되었다.

2021 년 12 월 화동기술이 주최한 메타버스 커리어 페어에는 하버드 카네기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학교에서 100 여 개의 이력서가 참가했고, 마침내 하버드를 비롯한 유수의 명문대 출신 인재들이 합류했다.

ARK Metaverse Office 의 블록체인 메커니즘은 인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개인 본인 소유로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으며, 이것은 플랫폼의 Web3.0 경제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인재 채용 배당금 외에도 ARK의 사무실 응용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사무실 건물 임대 비용, 사무집기, 사무용품 등 회사 운영 비용이 거의 90%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신 각 직원에게 '원격 오피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기금'을 제공하고, ARK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의 가상 기업을 타사에 임대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구현했다.

▶ 발전 연혁

년도	프로필
2013 년	소비자 대상 App 런칭, 사용자 100 만 명 유치
2014 년	2000 만 위안 투자 유치, 사용자 1000 만 명 유치
2015 년	8000 만 위안 투자 유치, 연간 수익 1 억 위안 돌파
2017 년	2 년 연속 Topdigital 혁신금상 수상 국가첨단기술기업 인증 누적 사용자 5000 만 명
2019 년	상하이칭푸구(青浦区)혁신팀상 수상
2021 년	누적 사용자 1 억 명 누적 데이터라이브러리 조급 양 추적



회사명	Mobile Miniature World 移动微世界(北京)网络科技有限公司		
소재지	베이징	홈페이지	https://wsj13.com
메타버스 분야	메타버스 전시/사무 서비스		



사진 2) 출처: Mobile Miniature World 사이트

Mobile Miniature World(移动微世界(北京)网络科技有限公司)는 중국에서 지명도 높은 가상현실 기술 응용 서비스 제공사다.

2014 년 베이징에 설립, 베이징 칭화과학단지(北京清华科技园)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 기술을 메타버스 컨퍼런스 전시관, 메타버스 협업 사무실에 적용한 기업이다. 3D/VR 엔진, 메타버스 음성 통신 엔진, 분산 서버 엔진의 3 대 주요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40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AAA 신용등급 인증(품질관리시스템·환경관리시스템·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3 대 인증), 국가 정보 보안 인증, 국가 첨단 기술 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화웨이 생태 파트너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발전 연혁

년도	프로필
2014 년	Mobile Miniature World(移动微世界) 베이징 창립
2019 년	세계 최고 독자 개발 메타버스 회의실 상품 출시

2019 년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사무실 '클라우드 SOHO(云楼 SOHO) 클라우드(云楼)회의실 런칭
2020 년	세계 최초 메타버스 회의 '중국인허전시관(中国银河会展中心)' 업로드
2020 년 5 월	화웨이와 전략적 합작 파트너 체결



Cloud Meeting
3D 시뮬레이션
Metaverse 회의실
다양한 가상 이벤트 시나리오 및 회의 기능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
간편한 조작, 높은 몰입감, 참가자는 아바타 형성하여 자신 표현, 지능적 상호작용

Cloud SOHO
Metaverse 디지털 오피스 빌딩
직원 연결, 고정 좌석 부여로 오프라인 사무실 장면 복원, 협업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엔진으로 채팅
컴퓨터 화면 보기 기능으로 직원 관리 감독

The Galaxy
클라우드 회의 전시 솔루션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실시간 스마트 음성 교류, 다측면 전시 참관, 온라인 라이브방송, VIP실 일대일 상담 및 계약 체결, 전자상거래 주문 지원
클라우드 포럼/발표회

▶ 수상 연혁

중국컨퍼런스산업팬더상-2020 중국 가장 영향력 있는 컨퍼런스 기업

2020 년도 중국 가장 영향력 있는 스마트 컨퍼런스 기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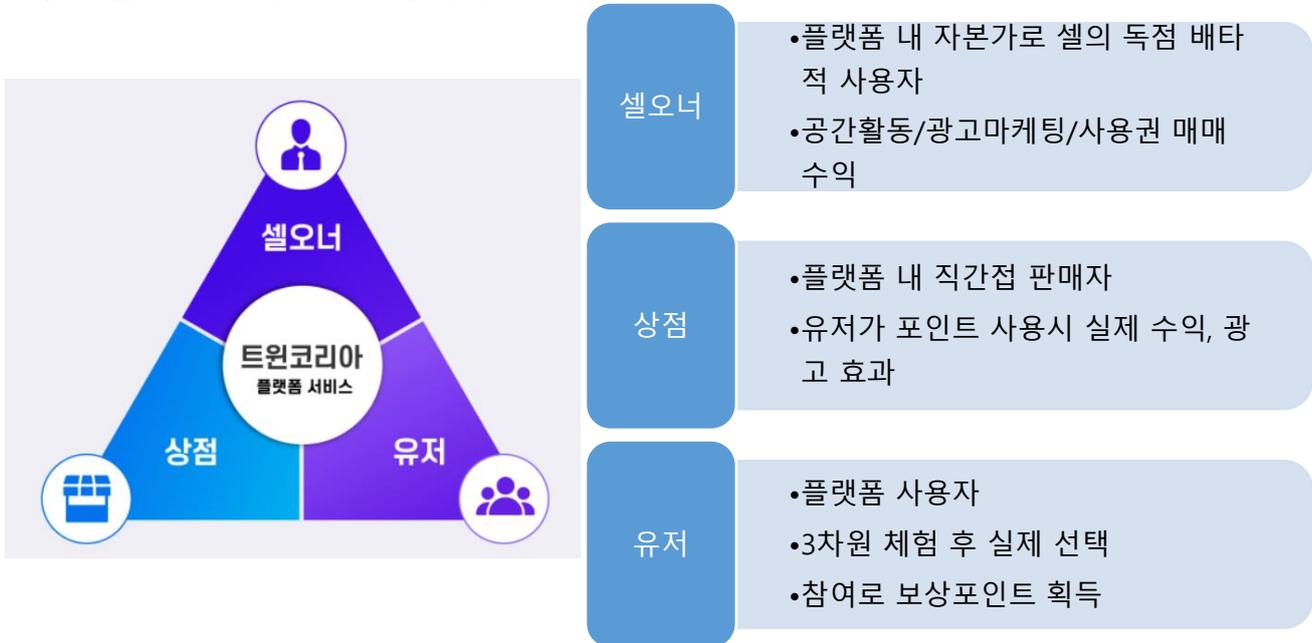
2020 년도 온라인 회의 서비스 기업 20 강 선정

회사명	트윈코리아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pre.twinkorea.io
메타버스 분야	실물경제 기여형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트윈코리아는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맛집 검색 등)를 제공하던 푸드테크 기업 식신주식회사가 출시한 현실 공간의 상점 정보를 담은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로 가상 부동산 서비스로 이해할 수도 있다.

트윈코리아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구역을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속 하나의 셀(Cell)로 구현하여 각 셀 위에 실제로 물리적 공간의 해당 위치에 있는 식당과 상점들이 노출되어 서비스 내 다양한 활동과 보상 수익을 창출한다.

▶ 트윈코리아 메타버스 생태계



2021년 12월 한경닷컴 보도에 의하면 트윈코리아 서울 지역 셀 사전 청약이 4만 6천명 분양자를 모집하는데 9시간만에 완판되었다고 했다. 트윈코리아는 월간 방문 유저 300만명에 달하는 위치기반 맛집 정보 서비스 플랫폼 '식신'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실제 식당과 상점의 데이터를 융합시킨 최초의 현실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약 75만개의 외식업 데이터와 5만여 개의 결제 가맹점 데이터를 메타버스 세계 속에 구현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기여형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잡는다는 방침이다.

*출처: 1. 3개 기업 공식사이트

2. 36kr 在虚拟世界中实现全员 Avatar 办公, 「花动科技」推出“ARK 元宇宙办公平台”

3. IT 업계(IT 业界) 元宇宙上班, 干脆撤销线下办公室的 IT 界新潮流 | ARK 元宇宙办公

4. 한경닷컴 식신 "메타버스 플랫폼 트윈코리아, 서울지역 사전청약 완판"

2. 【산업정책】 중국 AI 인재 양성 정책 I

본 내용은 바이두와 저장대학 중국과학교육 전략연구원에서 공동 발표한 <중국 AI 인재 양성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1) 전세계 AI 산업 구조



2) 중국의 AI 정책: 실물경제와 심도 융합 지속

중국은 2017 년을 인공지능 원년으로 삼고 국무원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통지>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발전에 관한 지침을 세웠다. 2018 년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 따르면 2030 년까지 중국을 세계 주요 인공지능 센터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2019 년 딜로이트가 발표한 <이미 온 미래·글로벌 AI 혁신 융합 도시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 년까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6 조 달러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 산업이 향후 전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결정짓는 3 가지 요인은 인재, 데이터, 시스템 구조인데 이 중 인공지능 분야 인재의 수량과 수준은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 기반 구조와 응용 및 확장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따라서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핵심 자원은 높은 수준의 인재로 각국의 인재 양성 규모와 수준이 미래 인공지능 산업 경쟁을 결정짓게 되었다.

3) 전세계 AI 인재 구조

<중국 인공지능 발전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7 년까지 전세계 AI 인재 중 61.8%가 상위 10 개 국가에 있고, 미국과 중국의 AI 인재 투입량이 1,2 위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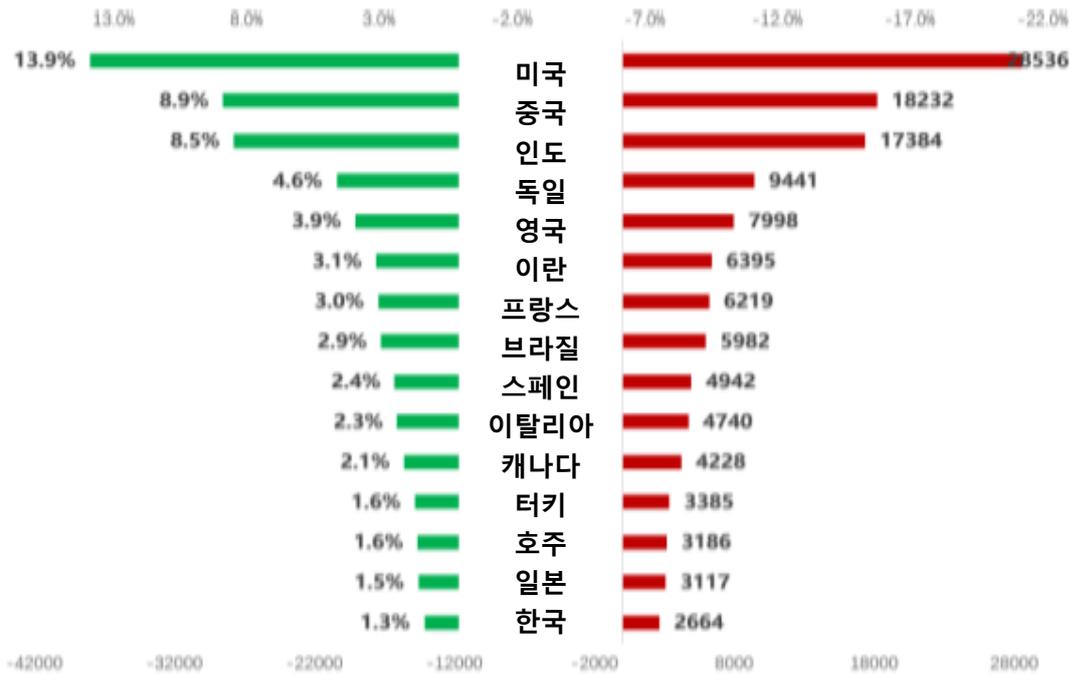


표 1) 출처: <중국 인공지능 발전 보고서(2018)>, 전세계 AI 인재 양성 데이터

① 과학연구 인재

학자 수로 볼 때 <스마트인재발전보고(2021)>에 따르면 상위 연구 인재의 50% 이상이 미국에 분포하고 있고, 칭화대학이 발표한 <인공지능 글로벌 영향력 2000 인> 중 미국이 1128 명으로 1 위를 차지했고 2 위인 중국은 172 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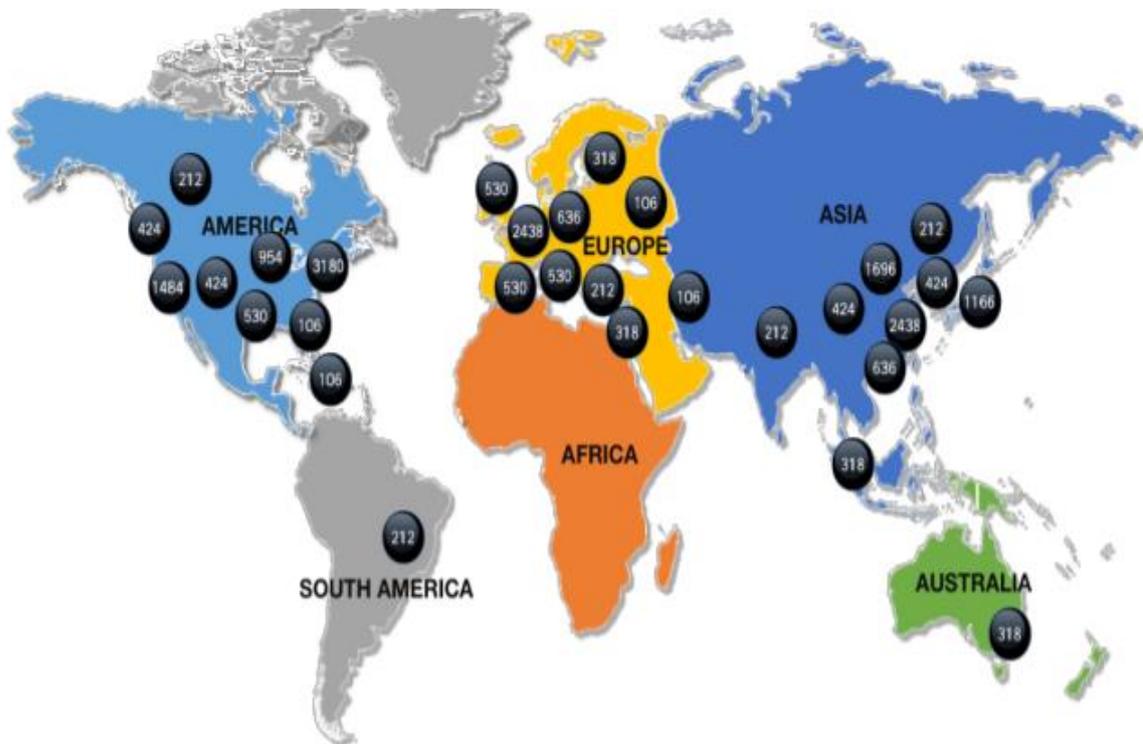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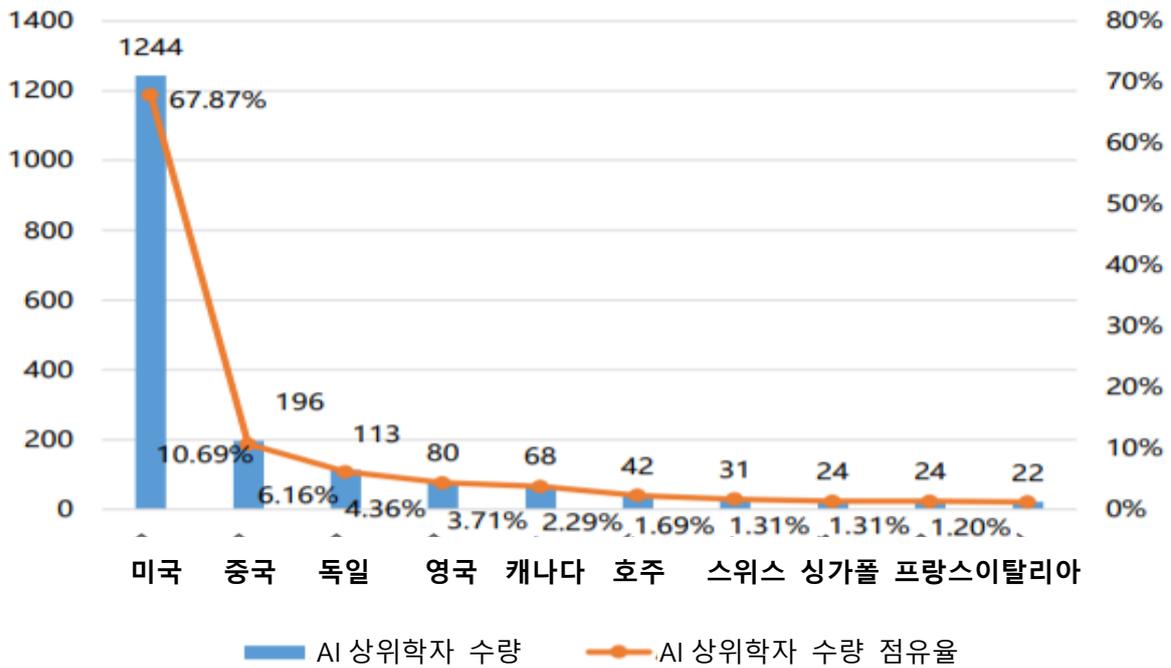


그림 1) 출처: <스마트인재발전보고(2021)>, 전세계 AI 영역 연구 인재 분포



②산업 인재

칭화대학이 발표한 <2018 년 중국 인공지능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논문과 특허 수량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인재를 많이 고용한 기업 순위로 상위 20 위 안의 절반이 모두 미국 회사로 총 1623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유럽이 6 개 사로 총 522 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중국은 화웨이 1 개 사만 순위에 들었고 73 명의 관련 인재를 고용하고 있었다.

4) 인재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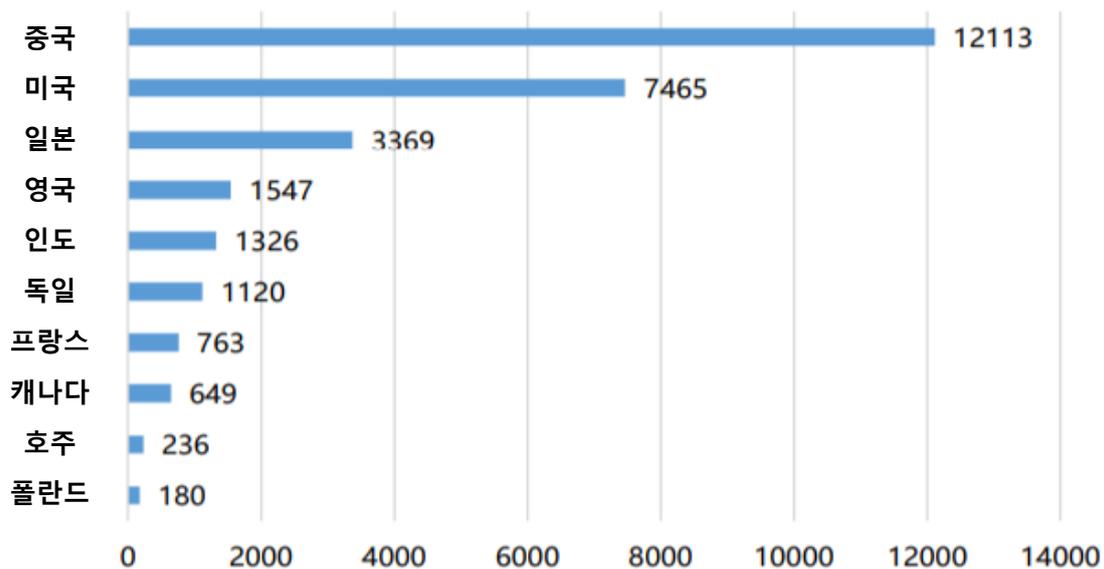


표 3) 출처: 이오(亿欧)싱크탱크 <2020 글로벌 AI 인재 양성 보고서> 국가별 AI 직무 구인 수량

전세계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인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Talent Seer 와 AI 인재 커뮤니티 Robin.ly 가 공동 발표한 <2020 인공지능 인재 보고서>에는 2016 년 ~2019 년까지 AI 인재 수요 연간 증가량이 74%까지 높아졌고 각 국가별로도 인재 부족을 겪고 있다.

2019 년 AI 회사 유형별 인재 구인 상황		
관련 팀	상세 직위	수요 정도
AI 알고리즘팀	딥러닝/머신러닝 엔지니어	80%
AI 연구팀	ML/CV/NLP 연구원	55%
플랫폼구조팀	풀스택/백디바이스/보안/개발운영 엔지니어	55%
데이터팀	데이터과학자/엔지니어	35%
하드웨어팀	매입시스템/하드웨어 엔지니어	35%
제품팀	제품매니저/백디바이스 엔지니어/사용자 체험 전문가	25%
비즈니스팀	업무 확장/마케팅/법무/판매	15%

표 4) 출처: 이오(亿欧)씽크탱크 <2020 글로벌 AI 인재 양성 보고서>

5) 글로벌 AI 인재 발전 추세

전세계 경제 주체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전략적으로 경쟁하게 되었다. 단 각국 자원 분포와 전략 목표 차이에 따라 각국의 AI 인재 양성 정책은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다원화된 인재팀 구축, 연방정부 역할에 중점을 둔다. 영국은 고등교육에 AI 인재 양성 촉진을 포함시키고 특수 과학교육 융합·산업교육 융합을 실시한다. 일본은 로봇에 기반하여 AI 인재를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이며, 캐나다는 완전한 인재 생태계 구축을 주요 임무로 설정했다.

산업시스템 발전에 힘입어 전세계 인공지능 인재 총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약 2 만 명의 인공지능 관련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시장의 백만 명급 수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구인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인공지능 인재 구조 측면에서 미국은 과학연구 인재·산업 인재, 기초 인재·첨단 인재 수량이 모두 가장 우위에 있다.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케임브리지 대학·튜링연구소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유명한 연구 기관이 있고, 과학 인재 양성 측면에서 선두

에 있다. 중국은 우수 인재가 대학과 연구 기관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산업 인재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각 인공지능 기업에서 응용형 인재 부족이 심하며 그 중 기술형 인재, 연구형 인재를 실제 직무 구인난이 가장 심하며, 특히 가장 시급히 인력을 충원해야 할 분야로 AI 알고리즘, 기초 연구, 플랫폼 구조가 꼽힌다. 따라서 각 AI 거대기업은 전례 없던 속도로 전세계 AI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

인재 수준 측면에서 미국은 첨단 인재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AI 인재 총량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했지만 첨단 AI 인재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뒤처지고 특히 첨단 기초연구형 인재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시스템을 융합 발전시킬 수 있는 정상급 응용형 인재가 크게 부족하다. 이에 바이두가 '향후 5년 500만 AI 인재 양성' 목표를 내세우며 중국의 AI 인재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살펴본 전세계 AI 분야 인재 현황에 이어 다음 호에서는 중국의 AI 인재 양성 모델과 문제점으로 지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겠다.

*출처: 저장대학 중국과학교육 전략연구원 <중국 AI 인재 양성 보고서>

3. 【기획/우수 기업】 2022 여성 창업가 우수 기업 시리즈 I

창업방(创业邦)이 선정한 <2022 가장 주목할 만한 여성 창업가>명단에 등재된 기업 중 우수 기업 일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본 주간에서는 여성 기업가 개인 역량과 기업에 기여한 공헌보다는 그녀들이 성장시킨 기업 소개 자체에 중점을 둔다.

273 호에서는 명단의 여성 창업가가 종사하는 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의료건강 분야를 소개한다.



사진 1) 출처: 기업사이트, 바이두백과, 창업방. 왼쪽부터 추이지송(崔霁松), 쑤메이린(孙美林), 친강(秦岗)

회사명	InnoCare 诺诚健华	여성 창업가	추이지송(崔霁松) 공동창업가&CEO
본사 소재지	베이징 중관춘	홈페이지	https://cn.innocarepharma.com
투융자 상황	2020 년 홍콩증권교역소 상장		
사업 분야	암면역치료 신약물 위주 바이오제약		

InnoCare(诺诚健华)는 전 세계에서 발병률이 높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부족한 종양 및 면역계 질환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혁신 약물을 개발·제공하는 회사다.

임상에서 시급히 필요한 혁신적인 약물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 개발 기능을 갖춘 종합 바이오 제약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약물 개발을 하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뇌, 척수, 그리고 시신경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 치료제 오렐라브루티닙(orelabrutinib)을 개발했는데 중국에서 백혈병 및 림프종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 연구 및 개발: 베이징과 난징에 각각 150 명 이상의 R&D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R&D 센터 보유.

구조 생물학, 단일 세포 시퀀싱, 빅 데이터 분석 방면의 전문가인 시이공 Shi Yigong(施一公) 교수와 장저민(张泽民, Zhang Zemin) 교수를 과학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협약 체결.

▶임상개발: 임상 개발팀이 임상 시험 설계, 실시, 약물 공급 및 시험 데이터 수집을 포함, 임상 시험의 모든 단계를 진행. 중국에 100 개 이상의 임상 기관 설립하여 임상팀이 운영.

▶생산: 5 만m² 이상 면적의 광저우 생산 기지 구축, 미국, 유럽, 일본의 GMP 표준에 따라 건설. 2기 확장은 2024년 완료될 예정 완공 후 면적 8만m²이상.

▶최근 현황

작년 7월 바이오젠사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렐라브루티닙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계약 성사금과 매출 성과금 받기로 함.

키메드 바이오사이언스(Keymed Biosciences)와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이중특이성 항체 기반 항암제 후보물질 'CM355' 공동 개발하여 1상 임상시험 환자 투약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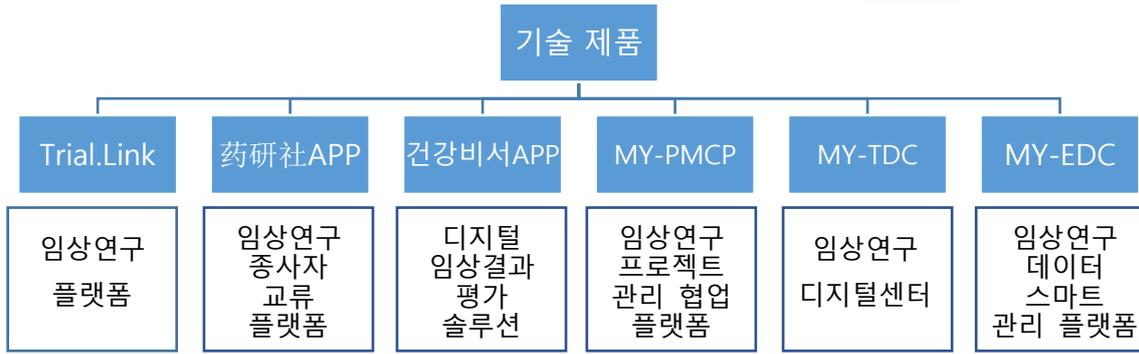
회사명	야오옌셔 药研社	여성 창업가	쑤메이린(孙美林) 창업가&CEO
본사 소재지	상하이	홈페이지	https://www.yaoyanshe.com/
투융자 상황	시리즈 C 3억 위안 자금 조달		
사업 분야	의약 연구 개발 플랫폼		

야오옌셔(药研社)는 제약 회사를 대상으로 제약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 기술 플랫폼이다. 인재 혁신을 본체로 데이터와 기술을 양 날개로 삼아 제약 R&D 분야에서 서비스 표준화와 프로세스화를 수립하고 품질을 견비한 독자 모델을 구축했다. 비용 및 효율성은 기존 모델보다 우수하며 R&D 주기가 20% 단축되고 평균 비용이 15% 절감되게 해준다.

▶솔루션 제공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서비스, SMO(임상시험지원기관) 서비스, 환자 모집, 인력 파견, SSU(Study Start up)센터 수립, 스마트 데이터 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 연구 포털 플랫폼 'Trial.Link'를 사용하여 약물 R&D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스마트 연결하여, 정보 장벽을 허문다. 또한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고품질 서비스 통합을 이루어 제약 R&D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한다.



▶ 최근 수상 연혁

- ◆ 36kr <2021 신경제 우수 기업>으로 선정
- ◆ 포브스 차이나 <2021 중국테크놀로지기업 50 강>으로 선정
- ◆ 지에미엔뉴스(界面新闻) <REAL 100 창업가> 중 뉴헬스 분야 Top10 에 의약 연구 기업으로 유일하게 등재
- ◆ 이오(亿欧) <2021 의약 디지털기업 Top10>으로 선정
- ◆ 후씨우(虎嗅) <2021 스마트의료 분야 고성장 기업 Top20>으로 선정

회사명	UNION STRONG TECH 强链智创	여성 창업가	친강(秦岗) 창업가&회장
본사 소재지	베이징	홈페이지	https://www.unionstrongtech.com
투융자 상황	시리즈 C 수 억 위안 자금 조달		
사업 분야	뇌혈관계 AI 치료		



사진 2) 출처: UNION STRONG TECH(强链智创)사이트, 뇌졸중 AI 진료 보조 플랫폼

UNION STRONG TECH(强链智创)는 2016년 설립하여 중국 최초로 하이테크 기술을 뇌혈관 질환 치료에 집중 적용하는 기업으로서 제품 연구 개발을 4년 이상 축적한 뇌혈관 질환의 스마트 진단·치료 플랫폼을 운영한다. 국가 권위 있는 신경 임상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한 통증 지점 치료부터 시작하여 진단 및 선별 조사, 환자 방문 검사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현재 제품 라인은 출혈성 및 허혈성 뇌졸중의 여러 질병에 대한 전체 진단 및 치료 과정을 스마트 지원한다. 스마트 진료 제품을 통해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작업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며 의사의 학습 곡선을 단축하고 진단 및 수술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뇌혈관 질환의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의 예후를 개선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

진료 서비스

- UKnow 출혈성 뇌졸중 스마트 보조 진료
- UGuard 허혈성 뇌졸중 스마트 보조 진료
- UPixel 스마트진료 클라우드 플랫폼

과학 연구 서비스

- AI·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발전
- AI 알고리즘 통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지원
- 핵심 실험실-질병사례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영상데이터 처리
- 실험프로젝트 관리 및 임상 과학연구 서비스

교육 훈련 서비스

- 두개골 내 혈관 영상 시뮬레이터 기기의 데이터 해독 및 처리

*출처:

1. 이노케어 사이트 <https://cn.innocarepharma.com>
2. 의학신문: 바이오젠 중 MS 신약후보 도입
3. 헬스코리아 뉴스: 中 이노케어·키메드, 이중특이성 차세대 항암제 'CM355' 임상 투약 시작
4. 야오옌서(药研社) 사이트 <https://www.yaoyanshe.com/>
5. UNION STRONG TECH(强链智创) <https://www.unionstrongtech.com>

KIC 중국 NEWS

1. 【KIC 행사】 '2022 KIC 중국 창업대회'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지난 25 일 'KIC 중국 창업대회'가 베이징 중관춘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혁신센터(이하 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가 단독으로 주최하고 KIC 중국,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주중한국대사관, ETRI, Hyundai Creative Accelerator(HCA), 중국한국상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기업가정신 배양 및 재중 한국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아이템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2022 KIC 중국 창업대회 메타버스 회의장

2022 KIC 중국 창업대회는 처음으로 메타버스와 함께 진행됐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온라인 미팅으로 적합한 메타보스 플랫폼을 최근 베이징 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여 체험하고자 시도하였다. 대회에 참가하는 창업자/팀과 심사위원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모였으며, 현장에 올 수 없는 관객들은 ARK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하여 대회를 관람했다. 일정은 1 부 창업대회, 2 부 시상식으로 나뉘었으며 메타버스는 관람은 1 부에서 가능했다. 온라인 참가자 수는 오프라인 참가자와 거의 동등한 숫자로, 기존 예상 2 배를 넘었다.



대회 현장과 메타버스 플랫폼 동시 진행 상황



대회 심사 현장

대회 결승에는 8 팀이 진출하였으며, 바이오, 환경보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었다. 3 일간의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25 일 당일 발표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하여, 대회 종료 후 저녁 만찬에서 수상 발표를 하였다. 수상자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이 주최,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창업대회 '하이쿨 HICOOL', '한·중·일 창업대회', '베이징대학교 창업교육 전국반 프로그램', 'CHINA 路&CHINA 梦' 등 창업 관련 각종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 대상 (1 팀)



럭스로보 차이나 최광일 대표

모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코딩 교육 제품 및 서비스이다. 2020 년 럭스로보 모디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인 상 월드디닥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 최우수상 (1 팀)



Oneself 김윤석 대표

Oneself 는 AI 를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검진 자가키트이다. 반려동물의 소량의 소변을 이용하여 40 초 안에 10 가지 주요 질환을 감지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앱을 통하여 건강 관리할 수 있다.

◆우수상 (2 팀)



로우카본 김익형 대표(왼쪽) SumOnesLink 이원석 대표(오른쪽)

2016 년 한국 설립 이래, 특허 등 지적재산권 95 건, 연 3 만 톤 생산공장 준공, 발전소와 국책연구기관의 실증과 인증, 조달청의 혁신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신기술 인증 등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SumOnesLink 는 과학기술,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정보의 세계에서 보고서, 논문, 특허 등 다양한 자료들에 쓰이는 도표, 그래프 등 시각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저녁 만찬을 가진 후 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의 폐회사로 마무리하였다. 계속되는 코로나 19 사태로 한중 간 인적 교류가 줄어서 이번 창업대회에서도 많은 창업가들이 난항을 겪었다며, KIC 중국의 지원으로 중국 내 기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KIC 중국은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향후 스타트업 교육, 기업 로드쇼 등 행사들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하였다.

2. 【KIC 행사】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재중 한국인 창업대회 개최



사진 1) 출처: 재외동포신문. 글로벌혁신센터(이하 KIC 중국)는 지난 3월 25일 베이징 중관춘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창업대회를 개최했다.

글로벌혁신센터(센터장 김종문, 이하 KIC 중국)는 지난 3월 25일 베이징 중관춘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창업대회를 개최했다.

KIC 중국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및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다.

재중 한국인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회장 윤석호), 코트라 베이징무역관(관장 홍창표)이 공동 주관하고,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그룹 중국현대기술혁신가속센터, 중국한국상회(회장 유도선)가 후원했다.

김종문 KIC 중국 센터장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중국 내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사업아이템 개발 능력을 함양해 창업 붐 조성고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청년 기업가를 발굴 및 양성하고자 이번 창업대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노경원 주중한국대사관 정보통신관은 축사를 통해 “참가하는 모든 팀이 이번 대회를 통해 발전하고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팀이 수상과 관계 없이 모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 2) 출처: 재외동포신문,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지난 3월 25일 베이징 중관춘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창업대회를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최강일 씨 발표 장면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팀이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결승에 참가했다. 대상은 사물인터넷 기반 코딩교육을 발표한 렉스로보차이나팀(최광일)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검진자가키트를 발표한 Oneself(김윤석)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탈항축매제를 발표한 로우카본팀(김익형)과 시각화데이터서비스를 발표한 SumOnesLink 팀(이원석)이 수상했다.

PharmaHill 팀(김정수), Hongtao corporation 팀(권지송), 에이제이온라인테스트팀(백종학), 미식지도팀(김용민)은 참가상을 수상했다. 수상 팀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상 20,000 위안(한화 약 382 만), 최우수상 10,000 위안(한화 약 191 만원), 우수상 5,000 위안(한화 약 5.5 만원), 참가상 1,000 위안(한화 약 19 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수상 팀에게는 중국 최대 규모 창업대회인 '하이쿨(HICOOL) 창업경진대회'를 비롯해 '한중일 창업경진대회', '베이징대학교 창업교육 전국반 프로그램', 'CHINA 路&CHINA 梦', 북경 내 창업인큐베이터(KOTRA IT 지원센터 및 중국정부 인큐베이션센터) 등 창업 관련 각종 대회 연계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창업대회는 처음으로 메타버스와 함께 진행됐다. 최근 베이징시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현장 참관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병행하기 위해 한국업체가 개발한 메타버스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참관자들은 실시간으로 창업대회의 진행사항을 관람했다.

대회 심사위원은 신진용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IT 지원센터장, 홍해 세계한인무역협회 차세대위원장, 강성민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장, 손익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윤석호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장, 김홍기 중국한국상회 수석부회장, 신재민 현대자동차그룹 지속발전부장이 맡았고, 권순태 북경 KCBC 회계사무소 회계사, 마이클유뱅크 오브아메리카 북경지부 이사, 김지훈 심천시중창공간협회 고문, 강신걸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IT 분과위원장 등이 멘토로 참여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